

## 동물성 식품의 건강 이미지가 기호 및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

박어진<sup>1</sup> · 박모라\*

<sup>1</sup>안동가톨릭상지대학 호텔외식학부, 경북대학교 이공대학 영양식품학과

### Influence of the Healthy Image of Meat and Animal Products on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Eo-Jin Park<sup>1</sup>, Mo-Ra Park\*

<sup>1</sup>Department of Culinary Arts, Catholic Sangji Colleg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healthy image on the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of meat and animal products. The study looked into beef, pork, chicken, sausage, mackerel, cutlass fish, croaker, tuna, squid, shrimp, clams, fish cakes, eggs, milk, yogurt, ice cream, and cheese. A total of 359 usable surveys given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adults were collected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While milk had the healthiest image, sausage had the least healthy image. The respondents preferred yogurt the most and sausage the least. The intake frequency of eggs was the highest and clams the lowest. The healthy image, preference, and intake frequency for all studied food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ross both gender and ag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y image and preference was significant for all foods, and a healthy image alway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reference. The relationship of healthy image and intake frequency was significant in 14 foods except for mackerel, cutlass fish, and tuna. Also a healthy image create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ake frequency of 14 foods.

Key words: Health image, preference, intake frequency, animal food

#### 1.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에 의해 다양한 문화 속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필수적 소비로 선택이 제한되었던 식품에서도 기호적 소비가 보편화되었다. 특히 식량의 대량생산과 다양하고 풍부한 식품의 공급은 식품이 더 이상 생명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소비되기보다 개인적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의해 소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Cha & Kim 2008; Kim & Roh 2008). 식품이나 그 가공품에서 기호가 강조되는 경향은 다양한 식품브랜드의 마케팅전략과 산업화로 대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여 식품업계에서는 이미지를 이용한 감성마케팅으로 구매를 조장하려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Almli 등 2011).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경제, 사회, 자연, 문화적 환경과 같은 개인 외적 요소와 가치관, 경험, 학습, 신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하는 메카니즘이다(Moskowitz 2002). 그 결과 특정제품에 대해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 이미지가 특정제품, 특정기업에 대

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식품과에 관련된 이미지가 소비에 영향을 주었던 경우는 대표적으로 햄버거, 콜라와 같은 구미식품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반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햄버거, 콜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경험을 방해하고, 경험 후에도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경험을 반복하는데 장애로 존재한다. 이에 반해 구미 문화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지역에서는 영양과학적 근거와 개인적 기호를 인지체계에 구조화하여 소비의 지속성으로 나타난다. 결국 이미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는 높은 소비를, 또 다른 특정 지역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진행되는 양극화 현상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는 수입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가의 이미지가 수입식품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어 구매까지 통제한다는 보고(Bae 등 2010; Yeh 등 2010)도 있다. 따라서 식품도 하나의 소비재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 현대에서 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기호 및 섭취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동물성 식품의 소비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비만, 성인병, 암 등 각종 식원성 질환이 문제

로 제기됨에 따라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가 그들의 기호와 섭취에 어떤 관계를 주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동물성 식품의 올바른 섭취교육과 통제를 위한 영양교육, 국민대상의 식생활 교육 시 전략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동물성 식품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보면 1994년 Smith & Kim이 한국인의 식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소고기가 한국인에게는 달고 지방이 풍부하며 전통적이며 자연적인 식품으로 인식한다고 하였고 생선은 한국인에게는 전통적이고 자연적인 식품으로 이미지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Yoon & Woo(1999)는 18세 이상의 성인은 육류를 섭취하면 만족감과 든든함, 스테미나가 증진되는 것 같은 심리적 느낌이 있으나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Cho(2000)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식품은 맛이 있고 영양이 좋으며 건강에 좋다고 인식하여 성인과 10대 청소년 간에는 건강이미지가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으로 대표적인 육가공품에 대한 영양사들의 인식은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고 보고(Jung 2005; Yong 등 2009)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육류식품 각각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육류식품 혹은 육류음식에 대한 조사이므로 동물성 식품 개개의 이미지 조사연구가 아쉬운 실정이다. 이외 동물성 식품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식품, 음식에 대한 기호도, 섭취빈도 조사가 연령, 성, 지역, 경제적 수준, 교육적 수준 등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기호나 섭취가 차이가 있다는 연구(Rappoport 등 1993; Kang & Ko 2007; Kim 등 2009; Lee 등 2009; Seo 등 2009; Han 등 2010; Lee 2010)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Brian 등(2003)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편안한 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다고 보고하면서 아이스크림, 쿠키, 초콜렛 등과 같은 스낵관련 음식보다 스테이크, 햄버거, 스프와 같은 식사(meal) 관련음식이 더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냉동가공식품은 영양, 건강, 위생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Lee 2009), 그 중 육가공식품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우려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부정적 의식으로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Yoon & Woo 1999; Yong 등 2009)고 하였다. 나아가 TV 등 미디어의 식품광고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나 기호에 영향을 주므로 광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한 연구(Kim & Kang 1997; Dina & Thomas 2001)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식품의 이미지가 개인의 기호나 섭취행동에 주요 영향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와 기호, 섭취빈도를 조사하여 식품의 건강이미지가 기호와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동시에 건강이미지, 기호, 섭취빈도가 성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wa(1999)와 Brian 등(2003)에 의하면 식품의 이미지는 영양, 맛, 건강상태와 같은 생리적 동기와 가격, 전통, 문화, 교육, 경험, 정체성 등 심리적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화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식품의 건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소비의 기준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식품의 건강이미지를 조사하는 것은 식품 마케팅이나 영양교육에서도 의미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육류의 섭취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호(Yoon & Woo 1999)와 실제 섭취행동에 건강이미지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기호나 섭취 교정을 요하는 식생활 교육에 교육매체로서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조사대상은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와 기호, 섭취빈도의 연령별, 성별차이를 살펴보고 건강이미지와 기호, 섭취빈도간의 관계를 알고자 대구경북일부 지역의 10대 초등학생 6학년(대구), 20대 대학생, 30~50대의 중장년층(상주, 안동)을 대상으로 임의표본추출법에 의거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에서 10대의 조사대상이 20대 이상의 조사대상과 거주지역이 달라 연령별 비교에서 10대 초등학생이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지역과 연령의 교차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식품기호는 성, 연령, 건강상태,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지역별 차이는 식생활 문화가 다르거나 해안, 산악지역과 같은 자연환경 조건이 다를 때 주로 나타나므로 본 조사의 10대 초등학생과 20대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이 같은 내륙지방의 식문화권 내에 있고 거리도 1시간 이내의 교통공간안에 있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지역에 따른 연령의 교차효과는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Choi(2006)는 초등학생의 육류와 생선류에 대한 기호는 농촌과 도시 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한편 현대사회는 도시화와 경제성장, 식생활 수준의 평균화로 식품의 공급과 소비가 지역적으로 많이 완화되었다. 실제 2008 국민건강영양실태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에 의하면 동물성 식품의 총 섭취량은 대구가  $255.1 \pm 17.2$  g, 경상도는  $248.3 \pm 11.9$  g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동물성 식품섭취량이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Lim(1999)은 80~90년대 영양취약층이었던 도시영세민과 농촌의 아동들이 90년대 이후 많이 개선되고 특히 단백질섭취량이 두 집단 모두 양호해져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들에게 있어 도시와 농촌 간 동물성 식품의 주 영양소인 단백질 섭취나 섭취빈도 격차가 많이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본 조사지역은 대도시인 대구와 중소도시인 상주, 안동지역이므로 이들 지역의 10대 동물성 식품의 섭취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총 400부의 설문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유용한 설문지 35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의 성 비율은 남성 48.2%, 여성 51.8%였고, 연령별 비율은 10대 25.1%, 20대 50.7%, 중장년층 24.2%였다. 조사기간은 예비조사(2010년 11월)를 거쳐 2011년 3월에서 5월까지 실시되었다.

## 2. 조사내용

### 1) 설문지 구성

설문지에 사용된 동물성 식품은 2008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의 다소비식품을 참고로 연구자가 일상적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식품 17종을 선정하였다.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새우, 오징어, 조개, 어묵, 소시지, 계란,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이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4분류로 구분되며 선행연구(Yoon & Woo 1999; Cho 2000; Lee & Kim 200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를 참고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 연령, 거주형태, 1주일간의 식사를 위한 평균지출비용, 외식빈도, 편식정도,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를 실시하였다.

둘째, 건강이미지 조사 부분으로 제시된 동물성 식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5점 리커트척도(5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나쁘다)로 조사하였다.

셋째, 기호조사 부분으로 제시된 동물성 식품에 대한 기호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5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싫다)로 조사하였다.

넷째, 섭취빈도 조사부분으로 제시된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빈도는 국민건강영양조사지의 섭취빈도척도를 참고로 연구자가 9단계(9점: 매끼, 8점: 1회/매일, 7점: 2~3회/주, 6점: 1회/주, 5점: 2~3회/달, 4점: 1회/달, 3점: 5~6회/년, 2점: 1~2회/년, 1점: 안먹음)로 조정하여 조사하였다.

### 2) 연구가설

이미지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마케팅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즉 건강식품 이미지가 충성도에 영향을 주어 구매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Seo & Joo 2008)하였고, 또한 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구매의사가 높아진다(Chong 등 2009)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식품의 이미지는 소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식품의 건강이미지가 기호나 섭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69년 국민건강영양섭취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8배 이상 섭취되고 있는 동시에 비만, 성인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라 동물성 식품의 건강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기호와 섭취행동에 직접 관계하리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건강이미지와 기호, 섭취행동을 조사하여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가 기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가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17.0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여 성별, 연령별 차이를 T-test와 ANOVA로 검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 mutiple range test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가설검증은 상관관계분석과 단순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 특성을 보면 남녀 모두 '자택 거주'(69.9, 63.4%)가, 1주일 동안 식비지출은 '3만원대'(20.8, 27.4%)가, 외식빈도는 '한달에 한번'(29.5, 29.6%)이, 건강자가평가는 '좋다'(57.8, 50.4%)에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편식정도는 남성의 경우 '때때로'와 '하지 않는다'가 각각 31.8%로 가장 높고 여성은 '약간 한다' 47.8%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령별 특성은 연령에 관계없이 '자택거주'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나 초등학생이 100%, 중장년층이 95.4%인데 반해 대학생은 36.3%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대학이 자택과는 떨어진 지역에 있으므로 기숙사나 자취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1주일 식비는 초등학생(37.8%)과 중장년층(26.4%)이 '3만원'대에서 가장 높고 대학생은 '1만원대'(26.4%)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외식빈도는 대학생(41.2%)과 중장년층(24.1%)이 '한달에 1회'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 초등학생(26.7%)은 '매일 외식한다'는 빈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편식정도는 초등학생(47.8%)의 경우 '약간 편식한다'에서, 대학생(31.3%)은 '때때로 편식한다', 중장년층(40.2%)은 '하지 않는다'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는 초등학생(77.8%)과 대학생(48.4%)이 '건강하다'에, 중장년층(43.2%)은 '보통이다'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한편 외식빈도에 대한 2008년 국민건강영양실태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에 의하면 '주1~6회 외식한다'는 빈도가 성별, 연령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12~18세의 '매일 1회 외식한다'는 비율은 19.3%로 조사되어 본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인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성별에 관계없이 '좋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별에서는 19~29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ross gender and age

Variables	Gender		Age			
	Male	Female	Teen-aged	Twenty-aged	Middle-aged	
Residence status	Home	121(69.9) <sup>1)</sup>	118(63.4)	90(100.0)	66(36.3)	83(95.4)
	Self-cooking	25(14.5)	27(14.5)	0(0)	51(28.0)	1(1.1)
	Boarding	0(0)	3(1.6)	0(0)	3(1.6)	0(0)
	Dormitory	26(15.0)	38(20.4)	0(0)	62(34.1)	2(2.3)
	Other	1(0.6)	0(0)	0(0)	0(0)	1(1.1)
Expenditure for meal (won/week)	10.000 less	16(9.2)	13(7.0)	14(15.6)	12(6.6)	3(3.4)
	10.~19.999	34(19.7)	38(20.4)	16(17.8)	48(26.4)	8(9.2)
	20.~29.999	22(12.7)	40(21.5)	10(11.1)	46(25.3)	6(6.9)
	30.~39.999	36(20.8)	51(27.4)	34(37.8)	30(16.5)	23(26.4)
	40.~49.999	20(11.6)	20(10.8)	4(4.4)	22(12.1)	14(16.1)
	50.~59.999	23(13.3)	7(3.8)	8(8.9)	11(6.0)	11(12.6)
	60.~69.999	17(9.8)	15(8.1)	4(4.4)	10(5.5)	18(20.7)
70.000 more	5(2.9)	2(1.1)	0(0)	3(1.6)	4(4.6)	
Frequency of eating out	Everyday	27(15.6)	24(12.9)	24(26.7)	17(9.3)	10(11.5)
	2,3 times/week	18(10.4)	27(14.5)	22(24.4)	11(6.0)	12(13.8)
	1 time/week	29(16.8)	32(17.2)	16(17.8)	27(14.8)	18(20.7)
	2,3 times/month	36(20.8)	30(16.1)	18(20.0)	32(17.6)	16(18.4)
	1 time/month	51(29.5)	55(29.6)	10(11.1)	75(41.2)	21(24.1)
	Almost	12(6.9)	18(9.7)	0(0)	20(11.0)	10(11.5)
Degree of unbalanced diet	Very	10(5.8)	9(4.8)	0(0)	4(2.2)	15(17.2)
	Often	8(4.6)	27(14.5)	6(6.7)	26(14.3)	3(3.4)
	Sometimes	55(31.8)	42(22.6)	21(23.3)	57(31.3)	19(21.8)
	Few	45(26.0)	63(33.9)	43(47.8)	40(27.5)	15(17.2)
	Rare	55(31.8)	45(24.2)	20(22.2)	45(24.7)	35(40.2)
Self assessment for health status	Good	100(57.8)	94(50.4)	70(77.8)	88(48.4)	36(41.4)
	Normal	70(40.5)	85(45.7)	20(22.2)	87(47.8)	155(43.2)
	Bad	3(1.7)	7(3.8)	0(0)	7(3.8)	10(2.8)

<sup>1)</sup>Number (Percentage)

가 ‘좋다’는 비율이, 30~59세가 ‘보통이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

동물성 식품 총 17종에 대한 건강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Table 2, 3>과 같다. 즉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식품은 5점 기준에 평균 4.43으로 우유이고, 건강에 가장 영향이 나쁠 것 같다는 식품은 2.56으로 소시지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와 같은 생선류와, 계란, 요쿠르트와 같은 식품은 평균 4점대의 점수를 보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으로 이미지가 인식되고 유가공품인 아이스크림은 2점대의 평균을 보여 건강에 나쁠 것 같은 식품으로 이미지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o(2000)에 의하면 중학생들은 육류식품이 영양이 우수하고, 맛이 있으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식한다고 하였고 인식점수도 5점 리커트 조사에서 4점대의 평균을 보여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생선도 4점대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한편 육류가공식품에 대한 이미지

조사는 Yong 등(2009)이 영양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2.90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조사 항목인 육가공식품인 소시지의 이미지 결과와 유사하였다.

성별 식품에 대한 건강이미지의 차이를 <Table 2>에서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오징어, 새우, 어묵, 우유, 아이스크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우유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동물성 식품에 더 호의적이라 하겠으며 이는 Cho(2000)의 육류식품에 대한 인식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낮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별 식품에 대한 건강이미지 차이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오징어, 새우, 조개, 어묵, 계란, 우유,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치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대학생에서, 소시지, 오징어, 새우, 조개, 어묵, 계란, 우유,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치즈는 초등학교에서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lt;Table 2&gt; The health image for animal food across gender

Food	Gender		Total	t-value
	Male	Female		
Beef	3.80±0.90 <sup>1)</sup>	3.54±0.83	3.67±0.87	2.88**
Pork	3.67±0.95	3.45±0.75	3.56±0.86	2.40*
Chicken	3.70±0.92	3.51±0.77	3.60±0.85	2.11*
Sausage	2.89±1.15	2.25±0.83	2.56±1.05	5.95***
Mackerel	4.39±0.71	4.40±0.66	4.40±0.68	-0.171
Cutlass fish	4.31±0.73	4.09±0.66	4.20±0.70	2.99**
Croaker	4.22±0.77	4.06±0.72	4.14±0.75	1.97*
Tuna	4.20±0.77	3.90±0.80	4.04±0.80	3.54***
Squid	3.81±0.91	3.50±0.74	3.65±0.84	3.48**
Shrimp	3.92±0.92	3.63±0.84	3.77±0.89	3.13**
Clams	3.85±0.88	3.68±0.79	3.76±0.84	1.89
Fish-cake	3.31±1.05	2.88±0.84	3.08±0.97	4.25***
Egg	4.08±0.93	3.95±0.78	4.01±0.86	1.36
Milk	4.34±0.80	4.51±0.72	4.43±0.76	-2.05*
Yoghourt	4.20±0.82	4.17±0.86	4.19±0.84	0.257
Ice-cream	3.05±1.14	2.49±1.03	2.76±1.12	4.90***
Cheese	3.77±0.98	3.64±0.95	3.70±0.96	1.32

<sup>1)</sup>Mean±SD (5: very good, 3: so-so, 1: very bad)

\*p<0.05, \*\*p<0.01, \*\*\*p<0.001

&lt;Table 3&gt; The health image for animal food across age

Food	Age			Total	F-value
	Teen-aged	Twenty-aged	Middle-aged		
Beef	3.58±0.86 <sup>1)a</sup>	3.85±0.81 <sup>b</sup>	3.38±0.93 <sup>a</sup>	3.67±0.87	9.689***
Pork	3.51±0.96 <sup>ab</sup>	3.69±0.82 <sup>b</sup>	3.33±0.79 <sup>a</sup>	3.56±0.86	5.271**
Chicken	3.56±0.96 <sup>ab</sup>	3.74±0.80 <sup>b</sup>	3.36±0.78 <sup>a</sup>	3.60±0.85	6.433**
Sausage	3.11±1.11 <sup>b</sup>	2.45±1.01 <sup>a</sup>	2.23±0.85 <sup>a</sup>	2.56±1.05	19.666***
Mackerel	4.27±0.72	4.47±0.65	4.38±0.72	4.40±0.68	2.777
Cutlass fish	4.18±0.74	4.23±0.69	4.15±0.69	4.20±0.70	0.441
Croaker	4.16±0.76	4.13±0.75	4.14±0.73	4.14±0.75	0.030
Tuna	4.16±0.67	4.00±0.81	4.02±0.88	4.04±0.80	1.191
Squid	3.98±0.78 <sup>b</sup>	3.60±0.84 <sup>a</sup>	3.41±0.80 <sup>a</sup>	3.65±0.84	11.388***
Shrimp	4.16±0.82 <sup>b</sup>	3.71±0.88 <sup>a</sup>	3.52±0.86 <sup>a</sup>	3.77±0.89	13.268***
Clams	4.04±0.90 <sup>b</sup>	3.69±0.79 <sup>a</sup>	3.63±0.81 <sup>a</sup>	3.76±0.84	7.139**
Fish-cake	3.76±0.98 <sup>b</sup>	2.86±0.89 <sup>a</sup>	2.86±0.81 <sup>a</sup>	3.08±0.97	34.085***
Egg	4.16±0.85 <sup>b</sup>	4.02±0.83 <sup>ab</sup>	3.84±0.91 <sup>a</sup>	4.01±0.86	3.069*
Milk	4.64±0.64 <sup>b</sup>	4.39±0.78 <sup>a</sup>	4.28±0.80 <sup>a</sup>	4.43±0.76	5.739**
Yoghourt	4.40±0.80 <sup>b</sup>	4.14±0.88 <sup>a</sup>	4.06±0.74 <sup>a</sup>	4.19±0.84	4.438*
Ice-cream	3.51±1.17 <sup>b</sup>	2.56±1.04 <sup>a</sup>	2.40±0.84 <sup>a</sup>	2.76±1.12	32.373***
Cheese	3.89±0.95 <sup>b</sup>	3.71±0.94 <sup>ab</sup>	3.49±0.99 <sup>a</sup>	3.70±0.96	3.783*

<sup>1)</sup>Mean±SD (5: very good, 3: so-so, 1: very bad)

\*p<0.05, \*\*p<0.01, \*\*\*p<0.001

<sup>abc</sup>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 3. 동물성 식품의 기호

동물성 식품에 대한 기호는 요구르트(4.06)가 가장 높고 소지(3.14)에 대한 기호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비교적 모든 동물성 식품의 기호도가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여 본 조사대상자들이 동물성 식품을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차이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고기, 참

치, 조개, 어묵, 아이스크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이스크림을 제외한 소고기, 참치, 조개, 어묵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차이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종의 모든 식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생이 다른 연령에 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에 대한 기호가 높고, 초등학교가 다른 연

<Table 4> The preference of animal food across gender

Food	Gender		Total	t-value
	Male	Female		
Beef	4.08±0.95 <sup>1)</sup>	3.83±1.01	3.95±0.99	2.33*
Pork	4.08±0.96	3.94±0.97	4.01±0.96	1.43
Chicken	3.93±1.00	4.01±1.02	3.97±1.01	-7.48
Sausage	3.24±1.21	3.04±1.25	3.14±1.23	1.57
Mackerel	3.97±0.99	3.77±1.02	3.87±1.01	1.89
Cutlass fish	3.87±1.03	3.69±1.10	3.78±1.07	1.59
Croaker	3.76±1.09	3.57±1.12	3.66±1.11	1.59
Tuna	3.99±0.94	3.78±1.06	3.88±1.00	2.03*
Squid	3.65±1.06	3.44±0.96	3.54±1.01	1.96
Shrimp	3.89±1.03	3.80±1.06	3.84±1.05	0.854
Clams	3.74±1.06	3.40±1.22	3.56±1.16	2.77**
Fish-cake	3.55±1.07	3.23±1.00	3.39±1.05	2.94**
Egg	4.02±1.00	3.85±0.90	3.93±0.95	1.67
Milk	4.07±1.05	3.86±1.11	3.96±1.09	1.76
Yoghourt	4.14±0.97	3.99±0.98	4.06±0.98	1.45
Ice-cream	3.54±1.13	3.78±1.17	3.66±1.16	-2.05*
Cheese	3.54±1.28	3.35±1.26	3.44±1.27	1.37

<sup>1)</sup>Mean±SD (5: like extremely, 3: so-so, 1: dislike extremely)

\*p<0.05, \*\*p<0.01, \*\*\*p<0.001

<Table 5> The preference for animal food across age

Food	Age			Total	F-value
	Teen-aged	Twenty-aged	Middle-aged		
Beef	3.76±0.93 <sup>1)a</sup>	4.20±0.90 <sup>b</sup>	3.62±1.08 <sup>a</sup>	3.95±0.99	13.444***
Pork	3.67±1.02 <sup>a</sup>	4.32±0.80 <sup>b</sup>	3.69±1.00 <sup>a</sup>	4.01±0.96	22.663***
Chicken	3.78±1.06 <sup>b</sup>	4.30±0.81 <sup>c</sup>	3.48±1.11 <sup>a</sup>	3.97±1.01	24.233***
Sausage	3.44±1.23 <sup>b</sup>	3.26±1.18 <sup>b</sup>	2.56±1.17 <sup>a</sup>	3.14±1.23	14.448***
Mackerel	4.11±0.90 <sup>b</sup>	3.75±1.05 <sup>a</sup>	3.85±1.00 <sup>ab</sup>	3.87±1.01	3.877*
Cutlass fish	4.11±0.90 <sup>b</sup>	3.59±1.14 <sup>a</sup>	3.83±0.98 <sup>a</sup>	3.78±1.07	7.462**
Croaker	4.13±0.91 <sup>b</sup>	3.41±1.14 <sup>a</sup>	3.69±1.09 <sup>a</sup>	3.66±1.11	13.607***
Tuna	4.22±0.73 <sup>c</sup>	3.92±0.98 <sup>b</sup>	3.46±1.15 <sup>a</sup>	3.88±1.00	13.902***
Squid	4.00±0.90 <sup>b</sup>	3.45±1.01 <sup>a</sup>	3.28±1.00 <sup>a</sup>	3.54±1.01	13.840***
Shrimp	4.11±0.98 <sup>b</sup>	3.92±1.02 <sup>b</sup>	3.39±1.05 <sup>a</sup>	3.84±1.05	12.348***
Clams	4.11±0.95 <sup>b</sup>	3.38±1.22 <sup>a</sup>	3.39±1.05 <sup>a</sup>	3.56±1.16	14.474***
Fish-cake	3.96±0.97 <sup>b</sup>	3.27±0.97 <sup>a</sup>	3.05±1.06 <sup>a</sup>	3.39±1.05	21.138***
Egg	4.13±0.91 <sup>b</sup>	3.98±0.92 <sup>b</sup>	3.60±0.99 <sup>a</sup>	3.93±0.95	7.522**
Milk	4.42±0.86 <sup>c</sup>	3.91±1.13 <sup>b</sup>	3.59±1.06 <sup>a</sup>	3.96±1.09	14.392***
Yoghourt	4.31±0.99 <sup>b</sup>	4.18±0.89 <sup>b</sup>	3.55±0.97 <sup>a</sup>	4.06±0.98	17.649***
Ice-cream	3.78±0.99 <sup>b</sup>	4.02±1.01 <sup>b</sup>	2.80±1.16 <sup>a</sup>	3.66±1.16	40.287***
Cheese	3.78±1.10 <sup>b</sup>	3.59±1.24 <sup>b</sup>	2.79±1.29 <sup>a</sup>	3.44±1.27	17.082***

<sup>1)</sup>Mean±SD (5: like extremely, 3: so-so, 1: dislike extremely)

\*p<0.05, \*\*p<0.01, \*\*\*p<0.001

<sup>abc</sup>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령층에 비해 소시지, 고등어, 갈치, 조지, 참치, 오징어, 새우, 조개, 어묵, 계란, 우유, 요구르트, 치즈에 대한 기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Jang & Kwon(1995)은 30, 40대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소고기, 우유,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순으로 좋아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여성은 닭고기, 돼지

고기, 우유, 계란, 소고기, 소시지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eo 등(2009)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우유, 치즈, 계란,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햄·소시지, 새우, 어묵, 조개·굴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Kim & Kim(2007)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식품에 대한 기호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

&lt;Table 6&gt; The intake Frequency of animal food across gender

Food	Gender		Total	t-value
	Male	Female		
Beef	5.19±1.38 <sup>1)</sup>	4.87±1.34	5.02±1.36	2.22*
Pork	5.86±1.14	5.51±1.14	5.68±1.16	2.87**
Chicken	5.73±1.35	5.42±1.13	5.57±1.25	2.35*
Sausage	4.75±1.87	4.40±1.66	4.57±1.77	1.83
Mackerel	5.34±1.34	4.71±1.35	5.01±1.38	4.41***
Cutlass fish	4.97±1.46	4.40±1.4	4.68±1.50	3.66***
Croaker	4.69±1.51	4.06±1.50	4.37±1.54	3.98***
Tuna	5.13±1.47	4.82±1.54	4.97±1.51	1.94
Squid	4.87±1.44	4.45±1.48	4.65±1.48	2.76**
Shrimp	4.65±1.48	3.96±1.52	4.29±1.54	4.36***
Clams	4.45±1.65	3.74±1.62	4.08±1.67	4.11***
Fish-cake	5.14±1.45	5.11±1.24	5.13±1.35	0.222
Egg	6.54±1.20	6.63±1.14	6.59±1.17	-0.782
Milk	6.62±1.74	6.49±1.91	6.55±1.83	0.693
Yoghourt	6.18±1.67	6.11±1.58	6.15±1.62	0.42
Ice-cream	6.03±1.59	5.79±1.74	5.91±1.67	1.35
Cheese	4.87±2.15	4.41±2.11	4.63±2.14	2.03*

<sup>1)</sup>Mean±SD (9: every meal, 8: 1 time/day, 7: 2~3 times/week, 6: 1 time/week, 5: 2~3 times/month, 4: 1 time/month, 3: 5~6 times/year, 2: 1~2 times/year, 1: no meal)

\*p<0.05, \*\*p<0.01, \*\*\*p<0.001

&lt;Table 7&gt; The intake frequency of animal food across age

Food	Age			Total	F-value
	Teen-aged	Twenty-aged	Middle-aged		
Beef	5.16±1.34 <sup>1)</sup>	5.03±1.34	4.86±1.45	5.02±1.36	1.029
Pork	5.33±1.22 <sup>a</sup>	5.83±1.10 <sup>b</sup>	5.71±1.14 <sup>b</sup>	5.68±1.16	5.705**
Chicken	5.13±1.37 <sup>a</sup>	5.92±1.11 <sup>b</sup>	5.28±1.18 <sup>a</sup>	5.57±1.25	16.512***
Sausage	4.80±1.68 <sup>b</sup>	4.90±1.54 <sup>b</sup>	3.63±1.99 <sup>a</sup>	4.57±1.77	17.616***
Mackerel	5.60±1.28 <sup>c</sup>	4.69±1.33 <sup>a</sup>	5.08±1.38 <sup>b</sup>	5.01±1.38	14.354***
Cutlass fish	5.49±1.45 <sup>c</sup>	4.26±1.39 <sup>a</sup>	4.70±1.44 <sup>b</sup>	4.68±1.50	22.619***
Croaker	5.31±1.42 <sup>c</sup>	3.87±1.40 <sup>a</sup>	4.43±1.46 <sup>b</sup>	4.37±1.54	31.105***
Tuna	5.29±1.49 <sup>b</sup>	5.12±1.30 <sup>b</sup>	4.31±1.75 <sup>a</sup>	4.97±1.51	11.879***
Squid	5.02±1.46 <sup>b</sup>	4.49±1.46 <sup>a</sup>	4.61±1.48 <sup>a</sup>	4.65±1.48	4.047*
Shrimp	4.82±1.69 <sup>b</sup>	4.16±1.43 <sup>a</sup>	4.01±1.47 <sup>a</sup>	4.29±1.54	7.747**
Clams	4.64±1.87 <sup>b</sup>	3.84±1.57 <sup>a</sup>	4.02±1.52 <sup>a</sup>	4.08±1.67	7.425**
Fish-cake	5.31±1.30 <sup>b</sup>	5.25±1.22 <sup>b</sup>	4.68±1.54 <sup>a</sup>	5.13±1.35	6.684**
Egg	6.42±1.37	6.65±1.05	6.62±1.18	6.59±1.17	1.225
Milk	7.64±1.34 <sup>b</sup>	6.31±1.78 <sup>a</sup>	5.94±1.91 <sup>a</sup>	6.55±1.83	25.559***
Yoghourt	6.93±1.31 <sup>b</sup>	6.01±1.49 <sup>a</sup>	5.63±1.88 <sup>a</sup>	6.15±1.62	17.056***
Ice-cream	6.55±1.38 <sup>b</sup>	6.29±1.27 <sup>b</sup>	4.44±1.82 <sup>a</sup>	5.91±1.67	60.044***
Cheese	5.58±2.25 <sup>c</sup>	4.72±1.90 <sup>b</sup>	3.46±1.97 <sup>a</sup>	4.63±2.14	25.016***

<sup>1)</sup>Mean±SD (9: every meal, 8: 1 time/day, 7: 2~3 times/week, 6: 1 time/week, 5: 2~3 times/month, 4: 1 time/month, 3: 5~6 times/year, 2: 1~2 times/year, 1: no meal)

\*p<0.05, \*\*p<0.01, \*\*\*p<0.001

<sup>abc</sup>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학생보다 육류식품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 (2010)은 한일여대생의 식품 기호조사 비교에서 두 나라의 여대생 모두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더 선호하고 육류, 우유 및 유제품의 기호가 생선의 기호보다 높다고 하

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 4. 동물성 식품의 섭취빈도

동물성 식품의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섭취빈도가

&lt;Table 8&gt;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of the health image on preference

Food	Correlation coefficient	B	Beta ( $\beta$ )	t-value	F-value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Beef	0.605***	0.684	0.605	14.365***	206.366***	0.366	0.365
Pork	0.502***	0.563	0.502	10.977***	120.505***	0.252	0.250
Chicken	0.523***	0.624	0.523	11.585***	134.218***	0.273	0.271
Sausage	0.529***	0.621	0.529	11.764***	138.402***	0.279	0.277
Mackerel	0.376***	0.555	0.376	7.662***	58.706***	0.141	0.139
Cutlass fish	0.390***	0.591	0.390	7.992***	63.869***	0.152	0.149
Croaker	0.381***	0.568	0.381	7.779***	60.518***	0.145	0.143
Tuna	0.415***	0.523	0.415	8.617***	74.251***	0.172	0.170
Squid	0.577***	0.697	0.577	13.335***	177.831***	0.332	0.331
Shrimp	0.275***	0.510	0.433	9.076***	82.378***	0.187	0.185
Clams	0.30***	0.655	0.474	10.158***	103.185***	0.224	0.222
Fish-cake	0.156**	0.623	0.578	13.367***	178.679***	0.334	0.332
Egg	0.155***	0.611	0.550	12.449***	154.970***	0.303	0.301
Milk	0.467***	0.667	0.467	9.968***	99.353***	0.218	0.216
Yoghourt	0.263***	0.307	0.263	5.154***	26.565***	0.069	0.067
Ice-cream	0.288***	0.134	0.130	2.474*	6.123*	0.017	0.014
Cheese	0.474***	0.625	0.474	10.177***	103.576***	0.225	0.223

\*p&lt;0.05, \*\*p&lt;0.01, \*\*\*p&lt;0.001

높은 것은 계란(6.59)으로 '주에 1회'(6점)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섭취빈도가 낮은 것은 조개류(4.08)로 '한 달에 1회'(4점)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 차이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새우, 조개류, 치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모든 식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1주일동안의 식품섭취횟수를 남녀별로 분석한 결과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햄소시지, 어묵, 달걀, 참치, 오징어, 조개류는 남성이 섭취횟수가 높고 고등어, 조기, 우유, 요구르트는 여성의 섭취횟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차이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고기와 계란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대학생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의 섭취빈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고, 초등학생은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오징어, 새우, 조개류, 어묵,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에 따르면 12~18세가 19~64세의 연령층에 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소시지, 달걀, 고등어, 참치, 어묵류, 오징어,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의 섭취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빈도를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Yoon & Lee 2005)한 보고에 의하면 우유는 초등학생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섭취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 5. 건강이미지와 기호, 섭취빈도

### 1) 가설 1

동물성 식품 17종에 대한 건강이미지와 기호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8>과 같다. 즉 건강이미지와 기호 간에는 모든 동물성 식품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회귀분석 결과 17종 식품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에 대한 건강이미지가 좋을수록 기호가 높다고 하겠다.

### 2) 가설 2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와 섭취빈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9>와 같다. 즉 고등어, 갈치, 참치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성 식품 14종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회귀분석 결과 14종 식품의 섭취빈도는 건강이미지와 유의한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조기, 오징어, 새우, 조개, 어묵, 계란,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에 대해 건강이미지가 좋을수록 섭취빈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가설검정 결과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가 기호에 영향을 미치고 섭취빈도에는 부분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변수가 개인적 기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변수보다 현실적으로 더 복잡하기 때문이라 본다. 즉 고등어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개인적 판단이 가족 혹은 식사를 준비



&lt;Table 9&gt; The influence and relationship of the health image on intake frequency

Food	Correlation coefficient	B	Beta ( $\beta$ )	t-value	F-value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Beef	0.132*	0.206	0.132	2.513*	6.317*	0.017	0.015
Pork	0.219***	0.294	0.219	4.238***	17.959***	0.048	0.045
Chicken	0.238***	0.350	0.238	4.627***	21.407***	0.057	0.054
Sausage	0.221***	0.373	0.221	4.276***	18.285***	0.049	0.046
Croaker	0.126*	0.260	0.126	2.403*	5.774*	0.016	0.013
Squid	0.272***	0.479	0.272	5.337***	28.483***	0.074	0.071
Shrimp	0.433***	0.476	0.275	5.413***	29.301***	0.076	0.073
Clams	0.474***	0.459	0.230	4.472***	20.000***	0.053	0.050
Fish-cake	0.578***	0.217	0.156	2.992**	8.954**	0.024	0.022
Egg	0.550***	0.211	0.155	2.956**	8.740**	0.024	0.021
Milk	0.247***	0.593	0.247	4.818***	23.212***	0.061	0.058
Yoghourt	0.148**	0.287	0.148	2.836**	8.044**	0.022	0.019
Ice-cream	0.130*	0.429	0.288	5.679***	32.248***	0.083	0.080
Cheese	0.287***	0.637	0.287	5.665***	32.090***	0.082	0.080

\*p<0.05, \*\*p<0.01, \*\*\*p<0.001

하거나 같이 하는 주변인들에 의해 섭취를 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본다. 개인적 기호는 높아도 주변인들의 기호가 낮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주취자가 싫어한다면 개인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섭취빈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와 섭취빈도 간에는 부분적 가설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결정계수(R<sup>2</sup>)값도 <Table 8>의 이미지와 기호간의 결정계수(R<sup>2</sup>)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분석됨에 따라 건강이미지가 섭취빈도보다 기호에 더 큰 영향을 가진다고 하겠다. 한편 Yoon & Woo(1999)에 의하면 육류의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교육수준, 한 달 수입, 1회 섭취량, 기호라 하였고 그 중 가장 영향이 높은 변수가 기호라 하였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고찰하면 섭취에 영향을 주는 기호가 건강이미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건강이미지는 섭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기호변인을 통해 간접적 영향도 미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IV. 요약 및 결론

건강식품에 대한 세계적 화두 속에서 동물성 식품의 과잉 섭취가 건강상의 장애로 논의되고 섭취통제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국가적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17종의 동물성 식품에 대한 건강이미지가 기호와 섭취빈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동물성 식품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비롯하여 일상적인 식품 17종으로 10~30대에서 50대의 중장년층 남녀 359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여성이 51.8%, 남성이 48.2%였고 초등학교 25.1%, 대학생 50.7% 중장년층이 24.2%였다. 거주형태는 66.6%가 자택에 거주하고 1주일 식사비용은 3만원대가 24.2%로 가장 많았다. 외식빈도는 1주일에 2~3회가 29.5%

로 가장 많고 편식의 정도는 '가끔 편식을 한다'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에 대한 자가평가는 '건강하다'가 전체 조사자의 5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본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 식품은 우유(4.43)이고 건강에 가장 영향이 나쁠 것 같은 식품은 소시지(2.56)였다. 한편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계란, 요구르트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으로 이미지가 인식되어 있었다. 성별 차이에서는 남성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오징어, 새우, 어묵, 아이스크림에서, 여성이 우유에서 건강에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연령별 차이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대학생에서, 소시지, 오징어, 새우, 조개, 어묵, 계란,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는 초등학교에서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3. 동물성 식품에 대한 기호는 요구르트(4.06)가 가장 높고 소시지(3.14)의 기호가 가장 낮았다. 성별차이는 남성이 소고기, 참치, 조개, 어묵을, 여성이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차이는 대학생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아이스크림에 대한 기호가 높고, 초등학교가 소시지,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오징어, 새우, 조개, 어묵, 계란, 우유, 요구르트, 치즈에 대한 기호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동물성 식품의 섭취빈도는 계란(6.59)이 가장 섭취빈도가 높고 가장 낮은 것은 조개류(4.08)였다. 성별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새우, 조개류, 치즈에서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차이는 대학생은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의 섭취빈도가, 초등학교는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오징어, 새우, 조개류, 어묵,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치즈에서 섭취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건강이미지와 기호의 상관관계는 17종 식품 전체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의 건강 이미지가 기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설은 채택되었다.

6. 건강이미지와 섭취빈도의 상관관계는 14종의 식품에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의 건강 이미지가 섭취빈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설은 14종의 식품에서만 가설을 부분적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특정사물에 대한 이미지는 교육, 문화, 전통, 경험, 개인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미지가 개인적 취향이나 기호에 관계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행동으로 표출되어진다. 물론 식품은 식욕, 영양 등 생리적 동기에 의해서 만으로도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이나 교육, 문화, 사회환경 등 심리적 동기에 의한 행동통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미 지 연구가 식품의 소비행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하나의 지표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동물성 식품의 경우 동물성 식품의 건강이미지가 기호와 섭취빈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동물성 식품의 기호나 섭취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이미지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단 본 연구는 다양한 이미지 중 식품과 관련이 가장 많은 건강이미지만을 조사하였고 건강이미지도 단일문항으로 측정함에 따라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다양한 개념들이 관계할 수 있음을 파악하는 데는 다른 연구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동물성 식품 중 17종만을 조사하여 동물성 식품 전체에 대한 이해로는 부족하다. 또한 연령별로 건강이미지, 기호, 섭취빈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나 연령별 표본이 지역이 달라 지역과 연령의 교차효과에 대해 검증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서는 연령별 관계는 검증하지 않으므로 교차효과에 의한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성,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의 교차효과에 따른 이미지와 기호, 섭취빈도와의 관계를 기대하고 나아가 식품의 다양한 이미지 즉 경제이미지, 문화이미지, 영양이미지 등과 같은 이미지와 식품기호, 섭취빈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국민 식생활 교육의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2009.

### ■ 참고문헌

Almli VL, Verbeke W, Vanhonacker F, Næs T, Hersleth M. 2011. General image and attribute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 in six European countrie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22(1):129-138

Bae JM, Kim MJ, Lee CS. 2010. An empirical study of effects of Korean wave on Chinese consumers' purchase attitude:

Focused on food product and corporate image. *J. of Modern China Studies*, 11(2):123-155

Cha MH & Kim YK. 2008. Moderating effect of health motivation, health Concern and food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ption value and purchasing intentions of healthy functional food. *J. of Korean Society of Science and Nutrition*, 37(11):1435-1442

Cho MJ. 2000. A comparative study on dietary behaviors and food percep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classified by body weight and gender, Master's degree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Education University. Korea

Choi IS. 2006. A study on food preference and dietary habits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urban area and rural area.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9(2); 249-264

Chong YK, Sung YK, Ryu IY. 2009. The effect of fast food customers' perceived risk on purchasing intention, attitude & risk reduction behavior. *Korean J. Food Culture*, 24(5):518-524

Dina LG & Thomas NR. 2001. The 30-second effect: An experiment revealing the impact of television commercials on food preference of preschoolers. *J. of the American Diet. Associ.*, 101(1):42-46

Ewa BZ. 1999. Food preference among the polish young adul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0(2): 139-145

Han JS, Han GP, Lee JS, Han GJ, Kim YJ. 2010. A survey of American perception and preference for Korean kimchi: Focus on Illinois and California, *Korean J. Food Culture*, 25(5):499-507

Jung YK. 2005. A study on purchase patterns and recognition of processed foods of school meal service dietitians. Master's degree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Kang JH & Ko BS. 2007. Measuring the mediated effects of attitude toward fish eating, health involvement and conven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sh consumption and age. *Korean J. Food Culture*, 22(3):309-314

Kim GR & Kim MJ. 2007. A survey on food prefer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chool food service system. *The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3(4):138-150

Kim HS. 2009. A survey study on protein foods intakes frequency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pp21-25

Kim KH & Kang KJ. 1997. Children's attitudes toward food advertisement on children's television program. *Korean J. Food Soc. Food Sic.*, 13(5):648-660

Kim SY & Roh HY. 2008. Analysis of the diversity in consumers' food demand over time. *Korean Journal of food marketing economics* 25(4):51-68

- Lee JS & Kim GS. 2000. Factors on the Seafood Preference and Eating Frequency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Soc Food Sci Nutr*, 29(6):1162-1168
- Lee KL, Jeong BY, Moon SK, Kim IS, Nakajima S, Nakamura S. 2010. Comparisons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eating habits and food preferen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9(11):1619-1626
- Lee KR, Lee JM, Cho MS. 2009. A comparison of the perceptions of Asian food by native Swedish and Yugoslavian immigrant university student in Vxj, Sweden-with a focus on Thai, Chinese, Japanese and Korean food. *Korean J. Food Culture*, 24(5):451-456
- Lee MJ. 2009. The image of frozen processed food and recognition of food and nutrition labeling. Master's degree thesis. Kyunghee University, pp35-38
- Lee YJ. 2010. The effects of Korean food globalization on foreigners' perception of wellbeing value and experience with Korean food. *Korean J. Food Culture*, 25(5):487-498
- Lim HJ. 1999. A study on the food habit and the evaluation of nutrient intake of preschool children in busan.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6): 1369-137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The 4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4th. ISSN 2005-6362
- Moskowitz HR. 2002. Explorations of the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image and sensory attributes of soup.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3(3):139-151
- Rappoport L, Peters G, Powney R, McCann T, Huff-Corzine L. 1993. Gender and difference in food cognition. *Appetite*, 20(1):33-52
- Smith NE & Kim SH. 1994. The perception of food in Korea: An investigation of taste and nutrition. *Korean J. Nutrition*, 27(3):292-303
- Seo DG, Joo HS. 2008. Impacts of LOHAS image and involvement to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perceived by hotel restaurant customers. *J. Korea Tourism Management*, 23(1):399-420
- Seo SJ, Min IJ, Shin HS. 2009. Study of eating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in young childrens: Differences by age and gender.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9(5):659-667.
- Yeh CH, Chen CI, Sher PJ. 2010. Investigation on perceived country image of imported food. *Food Quality and Preference*, 21(7):849-856
- Yong EZ, Choi YS, Lee KT. 2009. A survey on the perception and usage status of dietition in food service business for meat products. *Korean J. Food Sci. Ani. sour.*, 29(1):121-131
- Yoon GS & Woo JW. 1999. The perception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for the meats in korean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1):246-256
- Yoon HS & Lee GO. 2005. Preference and consumption patter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n milk and milk products, in Geochang area. *Journal mption pat. Dietetic Association* 11(4):449-461

---

2011년 8월 19일 신규논문접수, 10월 4일 수정논문접수, 10월 20일 수정논문접수, 12월 26일 채택